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이 맡겨준 새형의 트랙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한 금성뜨락또르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34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10차례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시면서 현지지도차수만 놓고보아도 주체적인 트랙또르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1958년 11월 14일 공장 로동계급이 만든 《천리마》호트랙또르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새로 만든 《천리마-2000》호트랙또르앞에 서시여 공장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깊은 감회속에 바라보시면서 금성뜨락또르공장이 지난 기간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결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온과 체취가 곳곳마다에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80hp트랙또르 《천리마-804》호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파란 색으로



산뜻하게 도장한 수백대의 새형의 80hp트랙또르들이 즐비하게 서있는것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정말 불만 하다고, 대단한 성과이라고, 수고들이 많았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시였다.

《천리마-804》호트랙또르들이 사회주의협동전야를 짝 메우게 하자는데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새형의 80hp트랙또르들이 내 나라의 논과 밭을 풍요하게 가꾸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니 신심이 넘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트랙또르에 오르시여 운전을 하시면서 《천리마-804》호의 성능과 기술적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시동이 잘 걸리고 운전하기가 편리하며 기운차게 움직인다고, 외형도 미끈하고 의장품들도 마음에 들며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트랙또르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80hp트랙또르부속품 총 3,377종에 1

만 228개 가운데서 3,333종에 1만 126개를 자체로 생산보장함으로써 국산화비율을 98.7%수준에서 보장하였는데 만리마시대에 태어난 조선의 트랙또르,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고의 목표를 내세우고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야마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라고 공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첫 《천리마》호트랙또르생산으로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들쭉게 한 공장의 로동계급이 새형의 《천리마-804》호트랙또르생산으로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빛내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산아인 80hp트랙또르가 울리는 동음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대진군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새형의 트랙또르는 단순한 륜전기계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길을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라고, 공장로동계

급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에게 호된 강타를 안겼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가공조립직장, 제관직장, 주물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다음해 수행해야 할 트랙또르생산과제를 주시고 공장개건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세계적수준의 트랙또르공장으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건현대화상무와 설계집단을 편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모든 생산공정들을 자동화, 흐름선화, 로봇트화하여 로력절약형공장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공장안팎을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문제, 종

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릴데 대한 문제, 공장로동계급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 개건현대화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금성뜨락또르공장개건현대화과업을 통하여 우리 나라 륜전기계공업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자고 하시면서 공장개건에 필요한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였으며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금성트랙또르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생산과 개건현대화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땅우에는 단풍계절 한해 한 번 있다지만 우리네 바다는 사시상철 풍성한 가을일세라는 《바다 만풍가》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동서해의 포구마다에서 울리고있다.

서해수산부문에서 올해 물고기잡이계획을 10월 9일 현재 103%로 넘쳐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이어 동해수산부문에서도 지금 물고기잡이가 한창이다.

어선들에 풍어기가 휘날리고 어로공들의 얼굴마다에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황금해의 역사를 계속 빛내여가려는 열의가 어려여있다.

공화국의 수산업발전에서 어로신화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창조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정력적인 령도속에 이 땅의 집집마다에 물고기두름이 사철 드리워있는 행복한 풍경

# 인민의 웃음이 《바다 만풍가》에 실려온다

이 년년이 펼쳐졌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것을 아시고 너무나 기쁘시여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노래까지 부르시였고 인민들의 식탁에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차례지도록 하기 위해 소수점 아래수자까지 깊이 관심하신 주석님이시였다. 주석님의 인민사랑을 이으시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도처에 양어장들을 꾸리도록 하시고 현대적인 메기공장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평양시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데 대한 문건에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수산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조국의 바다에 기적의 변이 나는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들을 찾으시여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고 하시면서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킬 방략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물고기보관 및 가공기지와 어구종합공장도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기배에도 오르시여 어로공들을 고무하시였고 물고기잡이에서 위훈을 창조한 어로공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몸소 한사람한사람 높은 국가수

훈의 영에도 안겨주시였다.

그 나날속에는 바람세찬 포구에 서시여 원아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신 이야기도 있고 소금기가 배인 차디찬 물고기절임탕크레에도 스팀없이 앉으시여 사업소일들과 사진을 찍으시고 조업을 앞둔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앞으로 선창마다에 물고기가 차넘치고 물고기사태가 쏟아지면 이곳을 선군14경으로 부르게 될것이라고 하신 가슴뜨거운 사실도 있다. 찬비내리는 날 포구를 돌아보시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귀중한 혁명전우, 참 좋은 동지들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이야기도 있다. 몸소 보내주신 현대적인 고기배의 이름을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호로 달아주시고 가득 쌓여있는 랭동물고기를 만져보시며 너무나 기쁘시여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헌신의 로고속에 물고기대

풍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었다.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첫해인 2014년에는 동서해에서 쌓여온 물고기사태를 보며 사회주의바다향기를 흥겹게 노래한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그 다음해에는 포구마다 물고기들이 산같이 쌓여 《이채어경》이라는 시대어도 탄생했다. 2016년에는 그 전해의 집중어로전투기간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도루메기산을 쌓음으로써 말그대로 새로운 어로신화가 기록되었다.

《단풍》호를 비롯한 고기배들이 힘차게 파도를 헤가르고 하류장에 물고기폭포가 쏟아지며 랭동창고들에는 물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바다면 산층에까지 사회주의바다향기 흘러가는 희한한 풍경은 결코 하늘이 준 덕이 아니고 세월이 안겨준 변천이 아니다.

조선의 황금해가 기적이라면 그 기적의 창조자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인민의 참된 총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세상에는 절경을 자랑하는 바다도 있고 풍부한 자연부원으로 이름높은 바다도 있다. 하지만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는 절세의 위인의 사랑의 손길아래 황금해로 불리우는 바다는 조선의 바다밖에 없다.

침략의 무리들이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선들을 들이밀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 때 조선의 《단풍》호들을 비롯한 고기배들이 만선의 배고동소리높이 바다를 누벼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무한한 공지와 자부심을 새겨안으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만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울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가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헌신과 로고속에 사회주의조선의 바다는 황금해로 더욱 빛을 뿌리고 이 땅우에는 《바다 만풍가》와 함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로 더욱 높이 울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몸소 《바다의 노래》를 부르시며

나라의 동해와 서해에서 물고기잡이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이즈음 사람들은 《바다의 노래》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을 돌이켜본다.

...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배전에 물고기를 만재한 배들이 만선의 배고동을 울리며 포구로 들어오는 바다풍경을 담은 노래이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노래를 무척 사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서해의 어장들에서 만선의 기쁨이 넘칠 때면 흥이 나시여 《바다의 노래》를 즐겨부르시였다.

주체65(1976)년 11월 위대한 주석님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동해지구 수산부문 열성자회의를 준비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그이께서는 한 일군에게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세면이 바다를 끼고있고 물고기자원도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노력만 하면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아 인민들의 밥상을 푸짐하게 하여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을 낚는 곳에서는 산을 뜯어먹고 바다를 낚는 곳에서는 바다를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하

시였다. 수산부문에서 만선기 휘날리도록 그이께서는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손수 정해주시였으며 인민들에게 하루에 차례질 물고기량까지 계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서해의 어장과 포구들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사시절 바다를 비우지 말고 깊은 바다에서도 잡고 얕은 바다에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고 당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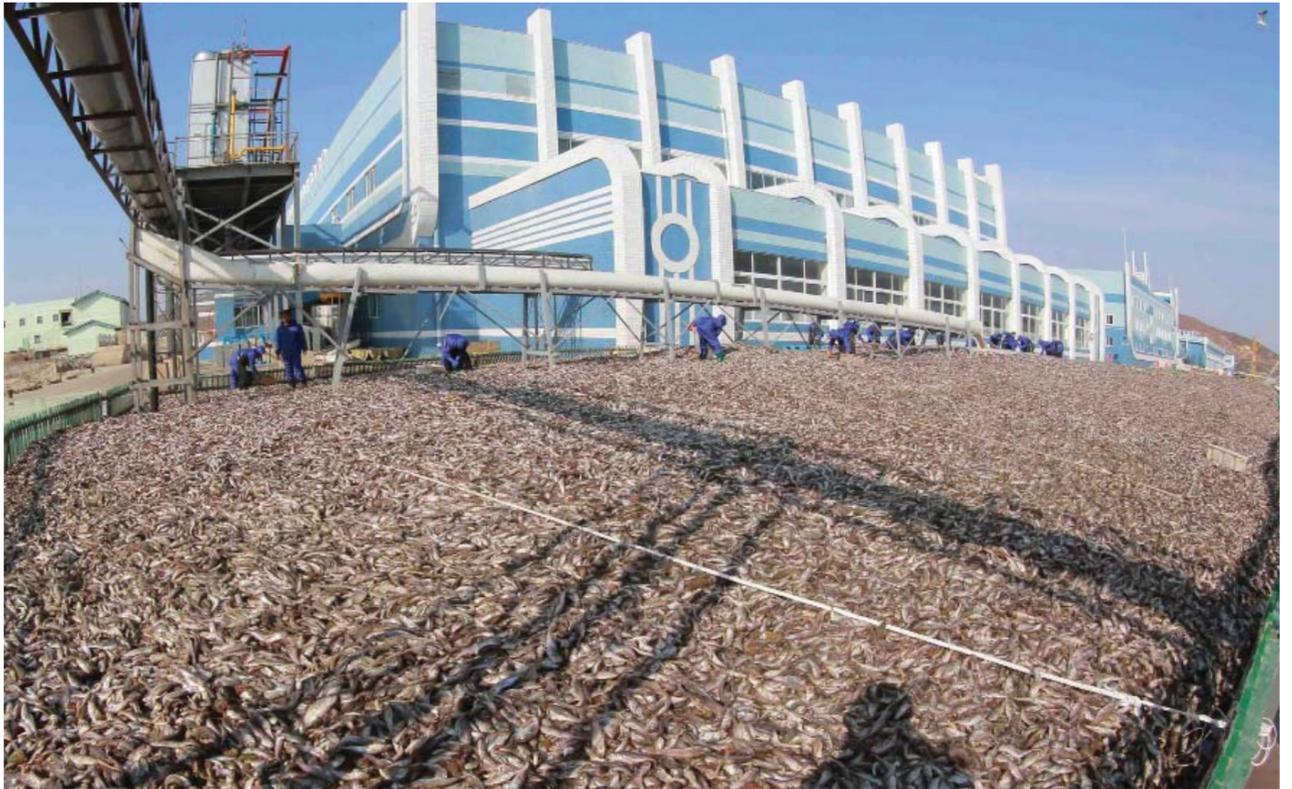
위대한 주석님의 가르치심대로 조선소들에서 만능화된 현대적인 고기배들을 건조하고 어장들에서 어획고를 높이기 위한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던 1979년 겨울이였다. 어느날 겨울철물고기잡이소식을 들으신 주석님께서는 동서해안의 어장분포와 어항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물고기잡이와 가공에서 제기되는 방도적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수산기지를 잘 꾸려놓기만 하면 명년에 수백만의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흥에 겨우신듯 노래가락을 뽑으시였다.

...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그이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며 배전에 그득히 쌓인 물고기풍년을 그려보시였고 인민들의 윤택한 식생활을 생각하

시였다. 《사시절 바다를 비우지 말고 / 더 많이 잡아주소》라는 노래구절에는 인민들이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도록 하자면 사시절 바다를 비우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 하나를 해도 손색없이

주체 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룡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오랜 시간 먼지이는 공사장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룡라도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1층을 돌아보신 후 아직 공사중이여서 안전관간도 없고 작업그물과 가름대들이 설치되어있는 원형타래계단을 오르시여 2층의 대중식

사실로 가신 그이께서는 바다의 좀 천해보이니 바닥타일을 까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족식사실에 들리시여서도 벽에 물뽕기를 바르니 칸감이 난다고 하시면서 아늑한감이 나게 천벽지를 붙이고 아래부분에는 나무문양의 벽지로 장식해야 하겠다고, 가족식사실 바닥에 칸 타일을 까내고 쪽닐을 깔아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하시였다.

## 몸소 라보신 관성비행차

주체99(2010)년 4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선청년공원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유희기구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관성비행차에로 다가가시였다. 속도가 빠르고 선로의 구배와 곡선이 심한데다가 360°로 회전까지 하면서 달리는 관성비행차는 아직 시운전을 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상태에 있었으

므로 일군들은 그에게 관성비행차를 타시는것은 그만 두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거듭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타야 할 기대인데 자신께서 먼저 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며 굳이 관성비행차에 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유쾌하신 어조로 우주에 한번 가보자고 하시며 관성비행차에 오르시더니 비행차의 조종간을 잡으시였다.

주체66(1977)년 7월 어느날이였다. 조국의 령공방위 임무를 맡고있는 한 인민군부대의 고사포병들은 공화국의 상공권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미군용직승기 한대를 발견하였다. 저공비행으로 그늘진 산허리를 에돌아 날아드는 목표물을 향하여 쏜 인민군고사포병들의 야무진 포소리가 산발을 뒤흔들었다. 경고사격이였다. 적기의 앞뒤로 예광탄이 선명한 줄을 그으며 날아올랐다.

이것을 본 적들은 질겁하였다. 미군직승기는 고도를 낮추며 착륙하는척 하더니 교활하게 초저공비행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놈들의 교활한 행동에 고사포병들은 적기를 향해 복수의 명중탄을 날리였다. 드디어 공중비적은 삼단같은 불길에 휩싸여 강물속에 처박히고말았다. 비행기에 탔던 조종사중 세명은 황천객이 되고 한명은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본사기자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인민군대의 단호한 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준 고사포병들의 높은 치하하시였다. 1980년 3월 미국과 남조

## 령장의 담력과 지략 (4) 불은 불로 다스리다

선호전세력이 벌린 《팀스피리트 80》합동군사연습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1976년부터 시작된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해마다 참가병력과 무장장비, 훈련기일이 대폭 늘어나 1980년에는 무려 16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병력이 동원되고 연습의 기일도 50일간에 달하였다. 웅근 하

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이 동원되어 수십일간 벌여지는 이 연습이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속담에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라고 하였다. 내외호전세력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의 대병력이 총포란을 쏘아대

면서 군사분계선지대를 향하여 급속도로 북상해오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민군부대들을 일시에 적들을 맞받아 기동시키도록 하

시였다. 침략세력의 준동을 단호히 제압하려는 대담무쌍한 작전이였다. 인민군대에서 전략적기동을 단행하자 군사분계선에 로 몰려오던 적들은 기겁하여 부랴부랴 훈련비상으로 전투비상으로 이전하는 일대 소동을 피웠다. 순간에 전쟁연습의 모든 계획

들이 형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었고 전쟁연습은 제일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 흐지부지되고말았다.

당시 조성된 상황을 보고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적들이 훈련비상으로부터 전투비상으로 넘어간것은 우리가 진행한 기동연습을 공격집단편성을 위한 부대기동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인것 같다고 하시며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실지 적들은 인민군대가 전방 가까이로 잘 무장된 부대들을 움직이자 그것을 대뜸 공격을 위한 배비변경으로 생각했던것이다. 결국 그들이 요란하게 준비하고 벌려놓았던 합동군사연습은 소득없는것으로 끝나고말았다.

이것은 불은 불로써, 부정은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다스리시는 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한 군사적지략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본사기자 주일봉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어머니의 모습

그날은 어머니날이었다. 김수복녀인의 집은 봄비는 방문객들로 쪼뚫었다. 갖가지 기념품이며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제 교장이 아니지만 제자들은 우리 교장선생님이라 부르며 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었다.

그는 처녀시절부터 근 60여년을 소학교 교단에서 생활하면서 교장으로, 공화국 2중로력영웅으로 학생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녀성들이 봉건적질곡과 멸시, 사회적천대와 멸시 속에 살던 지난날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제도가 좋고 세월이 좋아 복받은 그의 운명이다.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소작농의 집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그에게 차례진것은 가난과 빈궁, 몽매한 생활이었다. 그의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였으면 부모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 이름도 수복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란 그에게 복은 고사하고 글공부 같은것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해방후에야 비로소 배움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어릴적소망대로 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 없은 나이까지 교단에서 후대육성에 혼신을 다하였다.

그가 창천소학교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고있던 주체43(1954)년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학교를 찾으시고 그를 친히 만나시었다. 그이께서는 《단발머리선생님이로구만.》라고 하시며 너무도 꼼꼼하게 몸돌바를 몰라하는 그의 마음을 눈치주시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잊지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모범교원이 될수 있다고 따듯이 고무하시었다.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교시대로 이악하게 노력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그의 교육자적품모를 소개한 도서 《녀교원의 수기》가 나오고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녀교원》이 창작되어 김수복녀인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무릇 행운은 사람의 일생에 한두번 차례지나마나 하다고들하지만 수복녀인에게는 은혜로운 사랑과 믿음의 손길이 한생토록 뜨겁게 이어지었다. 주체50(1961)년 4월 제5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 그의 교수사업성과를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몇해후 그가 교장으로 일하고있던 어느날 또 다시 그를 만나시고 한개 학교를 책임지였으니 건강해서 일을 더 잘하라고 뜨겁게 격려해주시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여년이 지나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해의 개학날에는 창천소학교를 찾으시고 그를 비롯한 교원들과 학생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신 주석님이시었다.

그가 80이 넘는 나이에도 교단에서 미래를 육성하는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는것은 학생들을 최우등생으로, 모범학생으로 키운 영웅교장이라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피심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교원은 혁명가라고 하신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그는 위대한 주석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의 초침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교수교양에 온 정력을 다하였다.

김수복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녀성존중의 혜택아래 남성들과 똑같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참다운 인생을 향유하는 이 나라 녀성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보게 된다. 그러나 《문명》과 《발전》을 입버릇처럼 외우는 서방나라들만 보아도 남녀평등을 위한 녀성들의 지위와 권리보장문제는 법전우의 법전으로만 남아있을뿐이다. 오늘도 세계의 많은 녀성들이 남녀불평등과 무권리속에 《인형의 집》의 노라나 《노뜨르담대사원》의 에스메랄다, 《동백꽃아가씨》의 마르그리트의 처지에

서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서방세계가 선진적이라고 하는 녀성권리보장이란 특정한 계층의 녀성들과 금권의 뒤받침을 받는 녀성들만을 위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것이다.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다수 근로녀성들에게 있어서 남녀평등과 녀성권리실현은 한갓 공상에 불과한것이다. 이민주권의 사상이 국가의 지도리념으로 되어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우고있는 녀성존중의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은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보람찬 삶을 향유하고있다.

세월은 가고 백발은 오는 법이다. 그러나 김수복녀성은 오늘도 영웅교원, 영웅어머니로 못사람들의 존중속에 여생을 보람있게 살고있다. 그의 모습에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어머니날을 맞는 꽃대대에서

녀성은 가정과 사회의 꽃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사회의 발전수준,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국가의 녀성중시정치에 의하여 녀성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존엄높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녀성의 권리문제는 곧 해당나라의 사회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권리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고 실현되게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을 뿐아니라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노동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과 녀성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시책들에 의하여 녀성들의 모든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70여년전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헌법령에 의해 녀성들의 평등권과 정치적권리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정치생활분야에서 우리 녀성

들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국가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평범한 녀성노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각급 정치조직들에서 자기의 정치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총부속으로 일하고있다. 우리 녀성들은 경제생활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은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워줄뿐아니라 그들에게 《모성영웅》 칭호까지 안겨주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72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 나라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녀성들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실천적조치들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의제도와외의 대비속에서 볼 때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온갖 구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참다운 녀성인권을 요구하여 미국 시카고의 녀성들이 대중적투쟁을 벌린지도 한세기 가 훨씬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도 지구상의 여기저기에서는 존엄과 권리를 유린당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한숨과 곡성이 차던치고있다.

노동생활에서의 불평등과 가정폭력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 당하는 천대와 무권리의 축

## 진보적인류의겨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인사들이 서방언론들의 비방선전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사회주의조선의 착한 현실을 목격하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쿠바 브렌썸 라피나통신사 사장은 조미사이의 침예한 대결전이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는 세계언론계에서 긴장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서방의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는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려명거리가 완공된것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박동으로 전진하는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고있다.

지하철도물 비롯한 교통수단들, 수많은 건축물들, 봉사자들은 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다.

청소원들은 정부의 관심속에 자기의 정성을 마음껏 쏟고있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자야 추쁘라나음악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요란스러운 악선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국가》, 《인권유린국》, 《빈궁의 나라》 등 온갖 부정적인 언론의 영향으로 망설임과 긴장감까지 가득 찬속에서 조선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조선방문의 나날에 가뭇없이 사라졌다.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킨것은 주택, 교육, 보건분야에서 모든 공민들이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는것이였다.

조선의 현실은 이 나라를 지구상의 가장 《범죄적인 국가》로 묘사하는 미국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조선이 보다 공정하고 문명한 나라임을 명백히 실

증해주고있다. 로씨야 다게스탄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의 한 성원은 웅장화려한 도시 평양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 활력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조선의 높은 문명수준을 엿볼수 있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온갖 난관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며 창조한 모든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 조선방문의 나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인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만마동종의과학연구소 소장은 국가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조선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의 사상이 인민들의 사상과 신념으로 되고있다.

조선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위대한 사상과 발전된 과학기술, 문명이 없이는 번영을 이룩할수 없다는데로부터 조선의 혁명방식은 가장 정확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조선은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강위력한 나라이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룹빠 책임자는 현대적이며 급속히 발전하는 조선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이며 그래서 사회주의신봉자들이 이 나라를 찾아오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면서 적대세력들이 도저히 정복할수 없는 사회주의성세임을 전세계에 시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조선방문의 나날에 가뭇없이 사라졌다.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시킨것은 주택, 교육, 보건분야에서 모든 공민들이 무상으로 혜택을 누리는것이였다.

조선의 현실은 이 나라를 지구상의 가장 《범죄적인 국가》로 묘사하는 미국의 실패와 비교해볼 때 조선이 보다 공정하고 문명한 나라임을 명백히 실

증해주고있다. 로씨야 다게스탄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협회의 한 성원은 웅장화려한 도시 평양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경제, 활력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조선의 높은 문명수준을 엿볼수 있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온갖 난관과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며 창조한 모든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있다. 조선방문의 나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인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급속히 발전하는 신비스러운 나라

본사기자

# 녀성들의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제도

노동분야만 보더라도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과 평등하게 노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노동보호를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 녀성들이 노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시설이 꾸려져있으며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맡아 키우고있다. 녀성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병이 나도 돈 한푼 내지 않고 의료봉사를 받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적극 장려하고있다. 세쌍둥이, 네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녀성들에게는 당당의사를 두며 필요한 살림집을 주고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돌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다.

아일랜드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리나 말렌코는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 있다면 조선녀성으로 태어나고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이야말로 녀성의 권리가 참담게 보장되고 녀성의 존엄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녀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다.

조선의 인권보장제도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정치로 하여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자본주

도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의 고질적인 실업의 첫째가는 피해자는 다름아닌 녀성들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제일 힘들게 얻는것도 녀성들이고 제일 쉽게 떼우는것도 다름아닌 녀성들이다. 서방언론들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황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은 《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 라는것까지 만들어내고 결혼증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부가세》를 받아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미국에서는 해

마다 200만명이상의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로 되고있으며 인신매매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있다.

실업과 빈궁, 가정폭력에 쫓기는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모성의 권리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비참한 처지에 있다. 썩고 병든 이 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우울증으로 신음하던 끝에 어린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이 모든것은 녀성들을 《말하는 도구》, 《아이낳는 기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뿌리깊은 녀성천시가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가 녀성들의 인권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녀성천국이 라면 자본주의사회의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마구 짓밟는 녀성천시의 사회, 녀성인권의 불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은 남녀평등을 위한 초보적인 국제법적구도 실현하지 못한 저들의 한심한 녀성인권실태에 대해서는 미화분식하면서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상에는 어떻게 해서나 먹칠을 하려고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고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우리 나라를 《인권유린국》, 《인권불모지》로 몰아붙이려고 해도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주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우거나 훼손시킬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의 존엄과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마음속에,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비참한 처지와 눈물겨운 정상을 목격하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사랑, 녀성존중의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녀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도 잃게 된다는것이 우리 녀성들이 간직한 드림없는 철리이다.

우리 녀성들은 앞으로도 태양의 추복속에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더 활짝 피어나 조선녀성의 존엄과 권리를 온 세상에 높이 떨쳐갈것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실장 리 성 환

얼마전 우리는 나라의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서 우리와 만난 김현지배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두차례나 자기 공장에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기쁨에 대해 감회깊이 이야기 하였다.

그는 지난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몰라보게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이 녹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러졌으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뻬이 하였다고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는데 대해 말하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를 우러르며 공장일꾼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평양화장품공장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신의 자욱이 가슴뜨겁게 안겨와서였다.

두해전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

#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전하는 공장

\* 평양화장품공장을 찾아서 \*



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말하며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개건형성안은 물론 마크,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재보

장대책까지 몸소 세우주셨었다.

그이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음으로써 공장을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화장품생산기

지로 전변시키였다. 통합생산지령실, 화장품직장, 비누직장, 화장품용기직장, 도안창작실, 화장품연구소, 화장품분석소, 과학기술보급실, 제품견본실 등 그 어느곳을 돌아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이 어려웠지 않은데가 없었다.

화장품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

로 생산할수 있게 원료배합, 주입, 포장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 화장품용기생산공정에서 줄지어 나오는 용기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고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제일로 만족해하신것은 무엇이었던가. 우리의 원료를 화장품

생산에 적극 리용하고있는것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우리가 만든 설비들을 볼 때가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으신 그이이시였다.

정녕 철세위인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은하수》화장품이 인민들의 생활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공장의 제품견

본실에서 인민들의 더 밝은 래일을 확실성있게 그려볼수 있었다. 제품견본실에서 특별히 눈길을 끈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화장품견본자료들이였다.

천만국사를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품들어 콜라보내주신 하나하나의 접분마다에는 인민들을 아름답고 문명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다심한 손길이 깃들어있었다.

철세위인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한 이 공장 종업원들의 충정의 산물인 새 제품개발자료를 펼쳐보니 현대화, 과학화된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오는것만 같았다.

우리의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과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자욱과 더불어 《은하수》화장품의 그윽한 향기는 날이 갈수록 온 나라에 더욱 차넘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홍 범 식

## 화장품용기도 자체로 척척

화장품용기는 그 내용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용기에 따라 화장품의 가치도 달라지기때문이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능력은 큰 화장품용기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다양하고 빛깔고운 용기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사출작업반에서는 수십 가지나 되는 형태를 리용하여 각이한 형태와 색깔을 가진 수지용기들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하고있다.

현대적인 도장기와 진공증착기도 새로 받아들여 용기들의 장식적효과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지용기들은 접착상표를 붙이거나

곡면, 평면인쇄기에 의해 상표가 인쇄되어 화장품생산공정으로 넘어간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유리용기를 젓빛으로 처리하는 공정도 자체의 힘으로 꾸러놓았다.

제판, 마개부분사출, 도안인쇄, 상표찍기, 마개막이에 이르기까지 전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꾸러진

주브작업반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각이한 주브식화장품용기들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능력이 큰 화장품용기생산공정이 꾸러짐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 세계로 향하는 《은하수》 제품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고있었다.

세계적인 화장품발전추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밑에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기능적인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지난 2년동안에만도 공장에서는 세척, 보호, 분장효과를 나타내는 크림, 살결물을 비롯한 일반화

장품들과 비듬방지린스, 머리칼성장액을 비롯한 치료용화장품, 미백 및 로화, 자외선방지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화장품을 비롯한 40여종에 60점의 새 제품을 개발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람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해주는 여러가지 치료용화장품들은 뛰어난 효능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그중에는 여드름치료겔과 크림도 있다. 여드름은 사춘기청소년들속에서 나타나는 모낭피지선계염증성질환이다. 이전에는 여드름치료에 여러가지 약물을 사용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화장을 하지 말아야 했다.

치료겔과 크림은 여드름이 나온 부위에 1~3회만 바르면 일반적인 여드름은 완전히 없앨수 있다. 여드름이 잘 나는 사람들에 그후에 여드름방지살결물을 바르는 방법으로 이 병을 예방할수 있다.

늘 얼굴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호할수 있게 하는 이 여드름치료겔과 크림은 지금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모기에 의한 피부손상을 막고 천연수렴의 청신한 향기를 내는 모기방지향수, 원형탈모를 방지하는 머리칼성장액과 비듬방지 샴푸, 린스를 비롯한 인기있는 치료용화장품들을 만들어 내놓았다.

공장에서는 치료용화

장품만이 아니라 녀성들이 많이 찾는 아이라인이나 마스크라, 입술연지와 분크림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장용화장품들을 생산해내고있다.

분체의 나노화를 실현하고 표면처리기술을 받아들여 개발한 분장용화장품들은 부착력이 높고 자연스러운 화장효과를 낸다. 또한 화장지속성이 좋으며 땀이나 물에 의해 얼룩이 가는 현상이 없다.

처음으로 개발된 공기줄형머리칼고착제도 인기가 대단하다. 종전에 사용되던 고착제는 사용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이번에 새로 꾸러진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이 공기줄형머리칼고착제는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이 우점이다. 이 고착제를 리용하면 사무를 볼때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웬만한 눈비에서도 머리칼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주는것으로 하여 수요가 높다.

평양화장품공장 일꾼들과 기술자, 생산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머지않아 《은하수》화장품은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이름떨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보면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것은 공장이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선진적인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러진 점이다.

이 공장에서 과학기술은 생산규모와 질을 결정하는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공장의 경영관리방식은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에 철저히 의거하고있다.

화장품연구소는 평양화장품공장의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연구소는 새 제품개발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

로 개발되거나 질적수준이 높아진 제품들의 합리적인 배합비와 표준조작법은 곧 기술과로 넘어가며 생산에 도입되게 된다.

기술과에서는 이 자료들을 공장에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에 입력시키는데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에측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구축된 통합생산체계에 받아들인 기술적요조건들이 생산공정들에서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실시간 장악통제하며 제품의 질을 담보해주게 된다.

화장품분석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용화학공업부문이 다 그러하지만 화장품생산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이 바로 분석이다. 그렇기때문에 흔히 화장품생산은 분석으로 시작하여 분석으로 끝난다고들 한다.

화장품분석소가 바로 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것이다. 분석소에서 제품개발에 들어가는 원료는 물론 출하되는 제

품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요소들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분석을 맡아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내은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에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 실험설비들을 갖추어놓고 화장품과 원료들의 정성, 정량분석, 유해물질검출, 작용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하였다. 로화방지크림, 머리칼고착제 등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는데 평양화장품공장은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공장,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화장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 미치광이대통령이 저지른 만고죄악을 단죄한다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후 처음으로 남조선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미친 개처럼 돌아쳤다.

우리는 일본의 도쿄에서, 남조선의 평택과 서울에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베트남의 다낭에서,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트럼프가 놀아대는 꼴을 인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드러낸 트럼프의 추태가 역스럽거니와 그 진모를 일일이 밝히기에는 지면이 아까워 다만 남조선땅에서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만고죄악만을 해부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1박2일의 짧은 남조선행 각기간 예측한바 그대로 피이한 미치광이이고 너절한 사기협잡꾼이며 천하의 인간오작품으로서의 흉물스러운 정체를 다시금 낱날이 드러내 놓았다.

피뢰국회에까지 낯짝을 내민 트럼프는 35분짜리 연설가운데 무려 22분 동안이나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날조하여 더러운 구정물을 토해내고 갖은 악설을 해대며 내외를 경악시켰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각종 계기들과 트위터를 통해 때없이 내뱉던 반공화국광언망설과 흉언패설의 종합체가 바로 트럼프의 피뢰국회연설이라고 할수 있다.

《초대국》대통령이라는 품격과 체면도 다 췌버리고 굶주린 승냥이마냥 우리 공화국을 물어뜯지 못해 지랄발광한 트럼프의 추태는 우리 천만군민을 무섭게 격노케 하고있다.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 트럼프의 죄악은 첫째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약탈하게 증상모독한것이다.

우리 수령, 우리 장군, 우리 령도자는 복잡다단한 세기의 풍파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인민의 참세상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신 위인들의 위훈이시다.

미국처럼 그 누구도 가서는 안될 지옥이 아니라 세상사람들모두가 녀원하는 락원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참다운 모범을 이 땅우에 창조하신 정치원로들이시다.

망국과 복국, 건국의 곡절많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온 우리 인민이 우리 수령, 우리 장군, 우리 령도자를 천만심장으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며 인류지성과 량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트럼프는 자기가 조선반도에 온것은 그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세지가 있어서이라고 지껄여대면서 무엄하게도 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우리의 길을 《어두운 길》, 《지옥의 길》로 매도하였는가 하면 《압제와 과시적점령》이니, 《착란적인 믿음》이니 하며 우리 공화국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을 게저품을 물고 헐뜯어냈다.

나중에는 《도발중단》과 《기회제공》을 운운하며 주제넘는 혼시질까지

해냈다. 죽지 못해 몸살이 난 불한당이 아니고서야 감히 어떻게 우리의 신성한 하늘을 모독할수 있단 말인가.

한갓 버러지같은 늑대리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파위가 하늘의 태양에 대고 무지무도하게 샷대질을 하였으니 트럼프는 우리 인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특대형범죄자가 되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해댄 트럼프놈의 더러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구역질나는 그 상통을 무쇠마치로 후려갈겨 이글거리는 용광로에 처박겠다, 이번에 그 짐승같은 놈이 분계선에 기여나왔더라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것이다.

온갖 망발을 싸지르고 도망친 그놈을 세상 어디든 따라가서라도 돌랑쳐놓겠다고 욱욕 버르고 있다.

천벌맞을 죄악을 저지른 트럼프놈은 어느때든지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고야말것이다.

참을수 없는 트럼프의 죄악은 둘째로, 존엄높은 우리 국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극악하게 헐뜯어낸것이다.

낱은것이 멸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이 만고의 법칙은 노예사회, 봉건사회의 종말이 확증해주고있으며 황혼이 질어가고있는 악의 제국인 미국식자본주의사회의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력사발전의 필연적단계에서 자본의 착취제도를 부정하고 나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람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가장 우월하고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다.

원수들의 것처럼 약탈한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국가를 《군사적이단국가》, 《교도국가》, 《폐쇄국가》로, 우리 제도를 《악한 체제》, 《독재체제》로 걸고든 트럼프야말로 력사의 진리도 법칙도 모르는 무지한 광대, 세상을 보는 눈이 거꾸로 된 정신병자가 아닐수 없다.

최근 세간에서는 트럼프가 북에 서 빨리 손을 댔다가 정신없이 연어맞고 나서는 북에 대한 공부를 《진지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책방향을 더듬고있다는 풍설이 나돌았다.

하지만 악한은 선한것을 믿지 않고 나쁜것만 본다고 그동안 찬란한 우리의 현실에 눈을 감고 지옥을 헤매며 악마의 설교만 들은것이 분명하다.

무지한 트럼프는 남을 등쳐먹고 골프치는데만 미쳐돌아갈것이 아니라 아왕 《대통령》 병거지를 썼으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공부부러 제대로 했어야 했다.

하기야 골통에 돈을 끓여모을 생각만 차있는 그 저급한 지능으로는 제놈이 통치하는 늑고 병든 자본주의미국이 쇠퇴몰락하며 지옥의 길을 가고 있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

선은 날로 활기차게 락원의 길을 가고있는 이 판이한 현실에 작용하는 리치를 죽을 때까지 해득해내지 못할것이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 오점과 실책을 가리우기 위해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워보려고 험담질에 매달릴수 밖에 없는 트럼프가 가련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번에 트럼프는 비무장지대에 나간다고 흰소리를 쳤다가 일정을 취소하였는데 그것은 결코 날씨탓이 아니었다.

판문점에서 우리 병사들의 증오의 눈동자를 대하기 두렵고 인민이 주인된 밝은 세상을 멀췌한 정신으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을 전면봉쇄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발광하는것도 결국은 우리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세계가 선망하지 못하게 차단해보려는데 있다.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의 코앞에서 췌쳐낸 악담을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우리 제도를 부정하고 썩어빠진 미국식자본주의를 부식시킬 개꿈을 꾸는 트럼프와 같은 무지렁이는 우리 일심단결의 성벽에 이마박이 터져나 개죽음을 당하는 마지막순간까지 암흑은 광명을 이길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할것이다.

저주받을 트럼프의 죄악은 셋째로, 위대한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생활에 먹칠을 해보려고 발광한것이다.

트럼프로 말하면 언제 한번 우리 공화국공민과 만난적이 없고 단 한명의 우리 어린이를 본적도 없으며 이 땅의 어느 한곳도 와본적이 없는 알짜문의환이다.

우리 현실에 대해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인민의 삶에 대해 절벽인 주제에 트럼프는 《북주민들의 등급》이니, 《강제노동》이니, 《노예적삶》이니 뭉니 하는 잔인한 언어를 총동원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을 심히 모욕하고 약탈하게 증상하였다.

지어 반공화국모략꾼들이 뒤꽂방에서 조작해낸 자료들과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량설들까지 털거하면서 구린 입, 지린 입을 마구 놀려댔다.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지어 미국인들조차 트럼프의 황당한 나발에 아연실색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초대국》대통령의 연설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그만둔 쓰레기반역자의 나발을 런상시켰기때문이다.

그 거짓말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트럼프의 연설을 직접 들던 피뢰국회의원들마저 《북인권》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실인것처럼 열거했는데 신중하고 정제했어야 했다. 북의 반응이 두렵다고 우려했는가.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복된 삶은 인류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금없는 나라,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가 실시되는 유일한 나라, 실업이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는 복된 사회제도, 데로와 강도, 범죄와 패륜을 모르는 안정된 세상이 바로 우리 공화국이다.

그래서 인민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행복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국도의 인간중오사상이 만연하고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갈수록 심화되며 치떨리는 강력범죄들이 꼬리를 물고있는 속에 트럼프가 아시아행각을 하는 사이에도 끔찍한 총기란사건이 일어나 세상을 경악시킨 생지옥이 바로 오늘의 미국이다.

트럼프는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주절대기 전에 시대의 거울앞에서 최악으로 얼룩지고 피로 개발린 제 낯짝을 들여다보는것이 좋을 것이다.

밝음을 싫어하는 박테리아와 바퀴새끼는 어둑컴컴한 곳에 서식하며 콜레라와 페스트를 비롯한 온갖 몹쓸병을 퍼뜨린다.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의 폐허지대, 인권의 암흑천지인 제 집안팎에는 눈을 감고 찬란한 해빛아래 웃음꽃을 피워가는 우리 인민을 함부로 모욕하고 건전한 우리 사회에 먹칠을 해보려는 트럼프야말로 박테리아, 바퀴새끼라고 불러 마땅한 버러지이며 인간세상이 아니라 지옥이 더 어울리는 죽은자이다.

인민의 존엄을 짓밟고 우롱한자는 인민의 용서를 받을수 없다.

우리 인민은 트럼프의 낯짝을 승냥이 미체의 상징으로, 무자비한 복수의 목표판으로 삼고 그렇게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지옥으로 보내 줄것이다.

장벌을 면치 못할 트럼프의 죄악은 넷째로, 정의의 력사를 외곡하고 폭제의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겠다고 지껄여댄것이다.

이미 트럼프는 미국땅에서 《화염과 분노》, 《완전과피》와 《절멸》을 췌쳐대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량살육기도를 드러내어 온 겨레를 분노케 한 광대독무이다.

이 전쟁광이 이번에는 남조선과 그 주변나라들을 돌아치며 우리를 《도발자》, 《위협자》로 매도하고 저들은 《피해자》, 《수호자》로 둔갑시키느라 온갖 요설을 다 늘어놓았다.

우리가 력사적으로 취해온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북이 미국과 남조선을 수없이 공격했고 《푸에블로》호를 붙잡고 정찰기 《EC-121》을 격추했으며 핵관련 합의약속들을 깨고 《불법적인 핵활동》을 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과 세계에 《엄중한 위협》을 가하고있다고 췌쳐대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는것도 모자라 패배한 조선전쟁도 《승리한 전쟁》으로 둔갑시키며 자타가 공인하는 엄연한 력사마저 날조하는 철면피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력사공부는 해본적도 없는 무지한 트럼프가 우리의 령해를 침범했다가 영웅한 우리 해병들에게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간첩들이 쓴 사회문내용을 어떻게 알수 있고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이 우리 령공에 기여들었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격추되었는가를 들은적이 있겠는가.

초보적인 지각이 있다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지껄여대기 전에 과거 조미핵협상에 관계했던 력대 행정부 관리들을 만나 경수로제공을 비롯한 합의와 약속을 갠 장본인이 저들자신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입부리를 놀려도 놀려야 했다.

그러면 그 누구의 《공격》이니, 《불법적인 핵활동》이니 하는 헛나발을 망랑 불어낸 그 입에 사전에 자물쇠가 든듯히 채워졌을지도 모른다. 가소로운것은 트럼프가 력사를 날조하고도 모자라 흡사 주먹을 휘두르는 골목강대대장처럼 미국의 힘에 대해 떠들어댄것이다.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시험하지도 말라, 미국은 도망치지 않는다, 지금 조선반도주변에 핵항포함포함 핵잠수함이 배치되어있다,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 힘의 시대이다라고 피대를 돌군 트럼프이다.

그런가 하면 세계를 향해 북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도 그만두라, 모든 국가들이 북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고 고야댔다.

그것은 사실상 그 무슨 붕괴와 흡수통일, 정권교체, 38° 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행정부의 이른바 《4불원칙》이라는것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저들의 검은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막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췌쳐댄 트럼프의 망발들은 백악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종완성이고 우리 국가의 존재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며 우리 인민의 생존을 더는 허용치 않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밖에 달리 는 불수 없다.

미친개가 짖는다고 놀랄 우리가 아니다.

트럼프파위의 불량배, 천치, 바보에게서 찬사를 받는것을 오히려 모욕으로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악담질을 해댄 트럼프는 제놈의 만고죄악에 대해 우리 국가와 인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국의 엄정한 법정에 나서서, 인류의 정의와 량심의 심판대에서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상대가 놀아내는것만큼 대해주는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법도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철천지원수인 트럼프와 악마의 제국인 미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정의의 힘으로 깨끗이 쓸어버릴것이다.

미국은 가장 바라지 않는것을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며 악몽속에 떠올리던 끔찍한 광경을 현실로 보게 될것이다.

최문일



# 트럼프는 가장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최근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반공화국양언망설과 휴언패설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트럼프는 남조선 《국회》연설이라는데서 그 무슨 《어두운 길》, 《교도국가》, 《폐쇄국가》, 《독재체제》, 《강제로동》, 《노예적삶》을 뇌까리며 구경물같은 반공화국망발을 마구 토해냈다. 이로써 트럼프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를 극악하게 비방증상했으며 공화국인민들의 복된 생활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댔다. 미국의 미치광이인 트럼프가 굶주린 승냥이 마냥 공화국을 물어뜯지 못해 지랄발광한 추대는 지금 공화국 천만군민을 무섭게 격노케 하고있다. 공화국 천만군민의 생명이며 운명인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민족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며 인류지성과 양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 한갓 버리지같은 늑대리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파위가 하늘의 태양에 대고 무지무도하게 샷대질을 하였으니 트럼프는 우리 인민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특대형범죄자가 되었다. 력사발전의 필연적단계

에서 자본의 착취제도를 부정하고 나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람의 자주적본성을 구현한 가장 우월하고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다. 공화국에서는 근로하는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최우선시하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 가장 우월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가 실시되는 유일한 나라, 실업이 없고 빈부의 차이가 없는 복된 사회제도와, 레오와 강도, 범죄와 패륜을 모르는 안정된 세상이 바로 공화국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그처럼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주체조선의 영웅신화를 창조하며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고 있다. 인민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행복의 창가에서 울려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극도의 인간중오사상이 만연하고 빈부격차와 인종차별이 갈수록 심화되며 치밀리는 총기테로와

강력범죄들이 꼬리를 물고있는 인간생지옥이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걸고들고 공화국인민들의 복된 삶에 대해 이리저리쿵 시기중상한 트럼프야말로 력사의 진리도 법칙도 모르는 무지한 강패, 세상을 보는 눈이 거꾸로 된 정신병자가 아닐수 없다. 트럼프로 말하면 언제 한번 공화국망의 어느 한 곳도 와본적이 없고 공화국공민 누구와도 만나본적이 없는 알짜꾼외한이다. 반공화국모략군들이 뒤굴방에서 조작해낸 자료들과 우리 사회에서는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황당무계한 랑설들까지 렬거해낸 트럼프의 황당한 나발에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지어 미국인들조차 아연실색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그 거짓말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늑대리미치광이의 연설을 직접 들던 남조선 《국회》의원들마저 《북인권》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실인것처럼 렬거한데 대해 신중하고 정제했어야 했다, 북의 반응이 두렵다고 우려했겠는가. 팔통에 돈을 굶어모을 생각만 차있는 트럼프의

저급한 지능으로는 제놈이 통치하는 늑고 병든 자본주의미국이 쇠퇴몰락하며 지옥의 길을 가고있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은 날로 활기차게 락원의 길을 가고있는 이 판이한 현실에 작용하는 리치를 죽을 때까지 해독해내지 못할것이다. 트럼프가 췌쳐낸 망발들은 백악관의 대조선적대정책의 최종확인이고 공화국의 존재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며 공화국인민의 생존을 허용치 않겠다는 공언한 선전포고이다. 예로부터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고 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서고 공화국의 제도와 체제를 악랄하게 증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자들을 이 하늘아래 살아숨쉴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칠저히 매장해 버리려는것이 주체조선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천벌맛을 죄악을 저지른 트럼프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악당질을 해낸 대가를 반드시 치르거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미치광이 트럼프가 밝은 이 세상에서 더는 살기가 싫어진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하에 몸쓸것만 팔라라고 악취풍기는 구린 입에서 그토록 지옥이란 말을 토해내기 좋아하겠는가. 아마도 트럼프의 조상은 저승사자인것 같다. 그래서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덩치 큰 미국을 저승길로 인도하는것도 성치못한 이상을 좇다 하게 돌아치며 세인에게 지옥행을 강요하지 못해 몸살나 하는것 같다. 미치광이 트럼프가 밝은 이 세상에서 더는 살기가 싫어진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하에 몸쓸것만 팔라라고 악취풍기는 구린 입에서 그토록 지옥이란 말을 토해내기 좋아하겠는가. 아마도 트럼프의 조상은 저승사자인것 같다. 그래서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덩치 큰 미국을 저승길로 인도하는것도 성치못한 이상을 좇다 하게 돌아치며 세인에게 지옥행을 강요하지 못해 몸살나 하는것 같다.

참을수 없는것은 트럼프가 본색은 감추고 여론을 오도하며 감히 우리 공화국이 선택한 길을 두고 《어두운 길》, 《지옥의 길》이라고 갖은 악담을 다 췌쳐댄것이다. 누가 진짜 지옥의 길을 가고있는가. 늑고 병든 자본주의미국이 쇠퇴몰락하며 지옥의 길을 가고있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은 날로 활기차게 락원의 길을 가고있다. 승냥이처럼 물고뜯기

좋아하는 불망나니 트럼프가 미친듯이 고아댄다고 해서 밝고어둠이 달라질수는 없겠지만 행성을 어지럽히는 위험한 독소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 버릴수록 좋다. 밝음을 싫어하는 박테리아나 바퀴새끼는 몸쓸 병을 퍼뜨리기 전에 제거 좋아하는 어두운 곳으로 보내주는것이 상책이다. 트럼프를 하루빨리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야 한다. 평천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박성국

# 천벌을 피할수 없다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가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증상모독하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트럼프가 감히 하늘에 대고 샷대질을 한것을 보면 살기가 싫어지고 정신착란증에 걸려 로망을 하는것이 분명하다. 하기가 대통령이든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간체도모 갖추지 못하고 오직 팔트치기와 돈

굶어모으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늑대리의 입에서 무슨 온전한 소리 나오겠는가. 지능급수가 갓난아이정도밖에 안되는 트럼프의 주둥이에서 나온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결코 용서할수가 없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은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최악의 모욕이며 인류지성과 양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다. 천하의 악당질을 해댄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를 세상 그 어디 따라가서라도 만탄창을 갈겨 죽탕쳐 버리고싶은것이 지금 내심정이다. 천벌맛을 죄악을 저지른 늑대리 트럼프는 이제 우리 천만군민의 징벌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로동적위권 대원 김철영

# 전쟁도발을 꺾는 어리석은 객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고강도경고메세지》, 《전례없는 대규모무력시위》라는 가스론 나발을 불어대면서 조선동해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여기에는 《로날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3개의 미해방공모함라격단과 이지스구축함, 핵잠수함과 함재기들, 남조선의 해군함선들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이 지난 시기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라격단들을 수시로 들이밀면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가해보려고 발광한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3개의 핵항공모함라격단을 출한 핵전략자산과 함께 한꺼번에 끌어들이는것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늑대리미치광이가 남조선에 날아와 췌쳐낸 대결폭언의 연장으로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전전공공하는 트럼프패당의 대책없는 광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세는 의연 계속되고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이른바 《북핵, 미사일위협》의 광고밑에 수많은 핵전략자산들과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전쟁불장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 때문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침전쟁연습을 벌릴 때마다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묘사하고있지만 실지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내외여론들은 최근 미해군이 보유한 핵항공모함중 3척이 조선반도지역에 집결되어 무모한 북침전쟁훈련을 감행한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하고있다. 미국이 3개의 핵항공모함라격단과 수많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함선들과 핵잠수함을 조선동해에 들이밀어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감행한것은 그들의 대조선압살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사실들은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홍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이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자위적책무력강화조치를 막아보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맨몸으로 달리는 기관차를 멈춰 세워보려는 어리석은자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다고 3개의 핵항공모함라격단을 비롯하여 핵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한 미국의 군사적압박소동은 공화국의 군사적위력에 극도로 집결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객적은 허세를 부리며 도발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 핵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발광하는 호전광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세계앞에 더욱 드러낼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 삼전의 배만 불리워주는 가련한 노북

최근 남조선당국이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미국산 첨단무기도입과 무장장비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7일 남조선당국자는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앞으로 3년동안 130억US\$의 미국산 첨단군사장비들을 구입하며 미국은 그 대가로 남조선에 대한 탄도미사일탄두중량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지난 10월에 있는 제49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에 요청하였던 첨단감시장비들뿐 아니라 유사시 공화국의 핵, 로케트기지들에 대한 타격 임무를 담당할 스웬스 전투기 《F-35A》의 추가도입과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이지스구축함

탑재용 해상고고도요격미사일 《SM-3》의 구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떠들고있다. 2019년까지 신호정보수집장치도 장착된 4대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하며 자체의 핵동력잠수함건조도 본격적으로 다그치겠다고 광고해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탄도미사일탄두중량제한조치가 해제된 이상 유사시 북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2t이상인 《초정밀, 고위력, 다중화》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현재 사단급인 탄도미사일사령부를 군단급으로 증강하고 포병병종에 속해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새로운 군종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하며 부산을 퍼워대고있다. 이것은 가뜰이나 긴장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대결망동이 다. 이런 무모한 무력증강책동이 앞으로 어떤 파국적후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사실 《북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으며 남조선에 미국산 무기도 장비시켜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것은 미국의 흉악한 속심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당국이 도입하겠다고 하는 미국산 첨단무기들은 보통 수천만, 수십억US\$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니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는 또 얼마나 많이 짜내게 되겠

는가.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이고 전맹미치광이인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섬겨버치며 미군수속점재벌들의 배를 불려주고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에 더 깊숙이 가담해나서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가련한 식민지노북들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망동이 가져올것은 자멸뿐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만회해보려고 미국산 무기도입과 자체무장장비개발에 대해 떠들고 설쳐대면서 공화국이 맞서보겠다고 분수턱이 날릴수록 저들의 자멸만을 앞당길 뿐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처지에 어울리지 않던 《균형외교》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중국과 《관계개선관련 량국간 협의결과》라는것을 발표한것을 계기로 그 무슨 《균형외교》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나서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원한다》고 추파를 던졌는가 하면 그 아래 당국자들도 《량국간의 교류협력력을 정상계도로 회복시키겠다》, 《균형외교의 서막을 열겠다》고 회째게 늘어대고있다. 민충이 측대끝에 올라선것처럼 기고만장하여 가소롭게 늘어대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이 추대는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한편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철저한 노북인 남조선당국으로서의 상전의 《싸드》 추가배치요구를 절대로 거절할수 없다. 지난 3일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이 어느 한 강

연회에서 《방어자산 추가배치를 통한 〈수도권〉 방어능력강화조치》에 대해 력설한것만 놓고보아도 언제인가는 《싸드》가 추가로 배치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또 《싸드》레이다의 남조선배치와 미국과의 《탄도미사일경보훈련》 등은 남조선이 이미 미국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로 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등으로 남조선, 미국, 일본의 3각군사동맹은 사실상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미국이 주도하고있는 《인디아-태평양전략》에 적극 추종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행태에도 《균형외교》의 모순점이 있다. 트럼프의 남조선행각후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 미동맹이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며칠전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븐 배넌이 언론을 통해 밝힌것처럼 《인디아-태평양전략》이란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들이 중국을 둘러싸고 《해양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억제전략》이다. 그런데 말로는 《균형외교》를 떠들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디아-태평양전략》에 추종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추태에서 사람들은 식민지노북의 가련한 처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균형외교》란 미국이 철저히 추종된 주주들에게는 있어본적도 없고 있을수도 없는 허황한 꾀변에 불과하다. 《균형외교》라는것이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리득을 얻어보려는 말의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김 진 혁



◎ 《백두산 8경》 (6) ◎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

우리 겨레가 대대손손 전해갈 태조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 8경》에는 장쾌하고 우아한 천지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백두산천지처럼 높은 지대에 크고 깊고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호수는 없다.

분화구벽과 외륜산봉우리들이 하나로 어울려 독특한 절경을 펼친 천지의 풍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혹을 금할수 없게 한다. 새파란 맑은 물에 백두련봉의 천태만상을 비껴안고 백두산의 특유한 기후로 천변만화하는 자연조화를 일으키는 천지는 끝없는 경탄을 자아낸다.

백두산천지에는 특이한 자연조화로 하여 생긴 전설들이 많은데 천지에 룡이 살았다는 전설, 천지의 물이 하도 맑아 아흔아홉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곤 하였다는 전설 등을 들수 있다.

천하절승인 백두산천지를 공중에서 내려다보

면 5개의 소분지와 4개의 절벽구역들이 서로 엮바뀌어있는데 마치 목란꽃이 산들바람에 흔들릴 때의 모습을 방불케 하며 천지의 형태는 사람의 심장모양과 비슷하다. 더우기 신비한것은 거대한 천지의 물면이 년간 약 1.6m높이로 오르내리는것이다.

천지수면의 해발높이는 2190.15m이며 면적은 9.16km이고 최대물깊이는 384m, 평균물깊이는 213.3m, 물량은 19억 5500만m<sup>3</sup>에 달한다. 천지물은 한해에 7개월 얼어있으며 얼음두께는 1.5m이다. 특히 맑음도가 16m이다.

천지호반에는 300여종의 갖가지 식물들이 자라는데 자기 계절에 맞게 온갖 꽃들이 피어나 꽃바다를 이룬다. 천지에서는 사계절의 풍치를 다 볼수 있다.

천지기슭에는 3개의 온천이 있는데 여름에는 물면위로 솟구치지만 겨울에는 얼음밑의 물속에서 솟구쳐 백두산의 풍치,

천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천지에 일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동해의 격랑인양 세찬 물결이 바위와 절벽을 들이친다. 그리고 돌개바람이 몰아치면 천지의 물면우에는 물기둥이 사방에서 솟구치며 여기저기 옮겨진다.

천지의 절경에서 더욱 특이한것은 겨울의 설경이다. 세찬 눈보라가 멎고 햇빛이 비쳐들면 비루봉기슭에서는 얼음채양을 겹겹이 쓴 얼음만물상과 줄줄이 드리운 얼음수염이 이채를 띠고 얼음이 터갈라질 때 나는 독특한 음향이 분화구안을 채운다.

천지에서는 또한 눈의 쌓인형태도 다양하다. 천지호반은 두터운 눈이 등고선을 새긴 사관처럼 여러가지 모양으로 덮여있으며 세찬 바람에 의해 여기저기 옮겨지기도 하고 분화구벽으로 멀리 사라지기도 한다. 계곡과 흠들에는 많은 눈들이 쌓여 어디가 흠이고 계곡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또

한 통선에서 내려오는 눈과 천지얼음우에서 날려올라오는 눈이 서로 마주치면서 불고 굳어져 독특한 눈채양을 형성한다. 천지의 온천부근에는 여러명이 들어앉을수 있는 눈동굴이 형성된다. 여기서는 온도가 40℃이상의 온천물이 흰김을 뿜어올리며 겨울철풍치를 더해준다.

뿐만아니라 벼랑들사이로 쏟아져내리던 물줄기들이 얼어붙어 천태만상의 얼음폭포를 펼치고 여러가지 얼음조각상들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아침해살이 비쳐들어 펼쳐지는 황홀경은 설경의 최고절정을 이룬다.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의 장쾌하면서도 우아한 절경은 우리 겨레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고있으며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끝없이 빛내여가려는 신심과 락관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고있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부대장 김광남

조선의 유명한 민족전통음식인 김치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건강전문잡지는 세계5대건강식품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그중에서도 조선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잡지는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젖산균이 매우 많으며 다당류와 리그닌이 풍부하여 저지방건강조절식품으로 되는 조선김치가 세계5대건강식품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밝혔다.

붉고 투명한 빛깔과 향긋하고 시원하며 쫄쫄한 맛을 주는 김치는 암세포성장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장수식품으로 널리 인정되고있다.

로세아의 마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고급로리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음식들이 적지 않은데 그가운데서

한 농부가 억울하게 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안해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곧 감자를 심어야 하는데 나혼자서는 땅을 두질수가 없어요.》라고 씩여져있었다. 농부는 안해의 편지를

보고 곧 회답편지를 썼다. 《감자밭은 파지 마오 내가 거기에 금을 한단지

세계 5대 건강식품

조선김치

여러 나라의 통신들도 조선사람들의 식탁에 반드시 오르는 김치에는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광물질이 함유되어있다. 김치 섭취가 여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게 한



로 이 편지도 레외로 되지 않았다. 며칠후 농부는 또다시 안해의 편지를 받았다. 《이틀전 10여명이 와서 우리 땅을 몽땅 파헤쳐놓았어요.》

농부는 웃으며 인차 안해에게 《이제 감자를 심으면 되지 않소!》라고 편지를 썼다.

유모아

농부의 꾀

물었소.》

다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주체104(2015)년 나미비아에서 열린 유네스코 생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김치담그기 풍습을 《인류의 생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렇듯 조선민족의 자랑인 김치는 그 맛과 약리적 가치에 있어서 세상에 으뜸가는 건강식품으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잘못된 아침 식사 방법

—아침식사를 빨리 한다고 좋은것은 아니다. 아침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 건강에 리롭지 못하며 위장을 상하게 할수 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먼저 물을 마셔 온밤 잠을 자면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하고 20~30분 지나 식사를 하는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간식으로 아침식사를 굶매지 말아야 한다. 과자나 초콜렛 등 간식으로 하루 세끼식사중

가장 중요한 아침식사를 굶매는것은 매우 비과학적이다. 간식은 대체로 마른 음식이기때문에 아침에 반탈수상태에 있는 인체가 소화흡수하는데 불리하다.

—먹다 남은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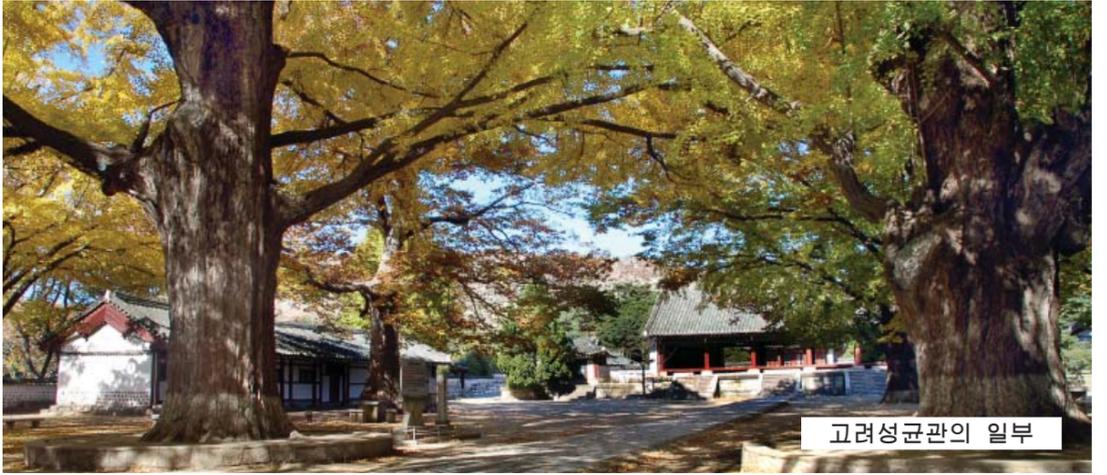
적지 않은 가정주부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아침식사로 다시 리용한다. 그런데 먹다 남은 남새음식에

서는 인체에 해로운 아질산염이 생겨날수 있다.

—지나치게 영양가높은 아침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고단백, 고열량, 고지방음식을 가능한한것 많이 먹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아침식사의 영양가가 지내 높아도 위장에 부담을 주고 건강에 해롭다.

본사기자



고려성균관의 일부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4)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좌중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교답소, 백운거사!》 리규보는 좌중에 대고 깎듯이 선절을 차리었다.

리인로가 매 사람들의 앞에 놓인 술보시기를 가리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현정의 명혼을 위로 하여 술을 들시다.》 술보시기들이 오르내리더니 좌중은 인차 취기로 하여 기분들이 폼다.

리담지가 리규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백운거사! 즉흥시를 하나 읊어보게, 어서!》 리규보는 첫 대면부터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것이 실제가 될것 같아 사양할 생각이 없었다.

술이 찰랑거리는 보시기를 보느라니 문득 그럴상심은 글귀가 떠올랐다.

음식이 신것은 누구나 다 싫거든

술은 신대도 왜 그리 좋아하나 술마시면 아마도 창자가 상하리라

원래야 한없이 독한 물건임에야

리담지와 조통, 황보항들이 갈채를 일으켰다.

리담지가 청자함을 리규보앞으로 밀어놓으며 떠들었다.

《아주 좋아. 일곱절에 시를 지었다는 옛 문인의 칠보시를 찢먹겠군. 어쩌면 누에가 실을 뿜듯 것처럼 거침없이 엮어내나.》

황보항이 짹짹 웃으며 우뚝들이 무뚝한 청자함을 가리켰다.

《백운거사, 안주로는 리담지가 없다 나무람말고 많이 들게.》

조통이 리규보의 손에 무우쪽을 들려주며 즐라 댔다.

《즉흥시 한번만 더! 내 청도 들어줘야지.》 술이 거나해지 리규보는 흥이 나서 대꾸했다.

《에라, 이 잘난 목청 아껴 무엇하리오. 해보겠소이다.》

리규보는 무우쪽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더니 별 씩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절여두면 여름에도 맛좋은 반찬이고

김장 담가 온 겨우내 먹을수도 있구나

땅밑에 자리잡은 큼직한 뿌리여

드는 칼로 쪼개 보니 연한 배 같구나

《잘한다, 잘해!》 조통이 술방구리를 두드리며 떠들어대고 리담지는 앉은자리에서 어깨춤을 들썩였다.

좌중은 취흥에 겨워 시에 시로 화답하고 노래

를 부르느라 해가 부소산 너머로 떨어지는줄도 몰랐다.

오로지 한사람 리인로만이 흥취로 설레이는 동료들을 둘러보고있었다.

술에 함뿍 취한 리규보는 피사팔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새아침이 밝아왔다. 산

아침을 먹는 피사팔사람들은 정각에 둘러앉았다.

리규보는 좌중의 분위기가 어제와 달리 숙연한것을 느끼고 은근히 마음을 조이였다.

리인로가 오세재가 자기를 피사팔로 불렀던 까닭을 말해주자고 할것이 분명하였기때문이었다.

그렇소, 우리가 짓는 글은 마땅히 그래야 하오.

그런 면에서 백운거사는 시 《동명왕편》을 잘 썼다고 할수 있소. 허나 좀 가혹한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나 그대가 지은 다른 시들은 그렇지 못했소. 왜냐하면 그 시들에서는 진실이 안겨오지 않았기때문이요. 현정은 바로 그것이 가슴아파 그대를 피사팔로 불렀던것이요.》

리규보는 머리를 떨구었다.

처음에는 자기를 추어주는듯 하더니 나중에는 깎아내린다고 언짢게도 여기었지만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니 그야말로 어대 가서 천냥, 만냥을 주고 피사팔로 부른것은 말로는 일깨워줄수 없는것

아니나다를가 리인로가 먼저 입을 뗐다.

《현정의 뜻이자 여기에 모여앉은 그의 문우들이 우리의 뜻이기도 하오. 현정이 백운거사 그대를 피사팔로 부른것은 말로는 일깨워줄수 없는것

를 부르느라 해가 부소산 너머로 떨어지는줄도 몰랐다.

오로지 한사람 리인로만이 흥취로 설레이는 동료들을 둘러보고있었다.

술에 함뿍 취한 리규보는 피사팔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새아침이 밝아왔다. 산

아침을 먹는 피사팔사람들은 정각에 둘러앉았다.

리규보는 좌중의 분위기가 어제와 달리 숙연한것을 느끼고 은근히 마음을 조이였다.

리인로가 오세재가 자기를 피사팔로 불렀던 까닭을 말해주자고 할것이 분명하였기때문이었다.

그렇소, 우리가 짓는 글은 마땅히 그래야 하오.

처음에는 자기를 추어주는듯 하더니 나중에는 깎아내린다고 언짢게도 여기었지만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니 그야말로 어대 가서 천냥, 만냥을 주고 피사팔로 부른것은 말로는 일깨워줄수 없는것



촌의 그윽한 정서가 비긴 피사팔의 아침은 리규보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웅건한 산악미까지 있으면 천마산의 아침에 비길수 있으면만 이만해도 시흥을 찾기는 나무랄데가 없었다.